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온기 보태겠다”

●광양시 '올해 봉사왕' 양성모씨

2011년부터 5천956시간·1천301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가정·시설 등 지원...오는 29일 '자원봉사의 밤'서 수상

“앞으로도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두 팔 걷어 붙여 조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양시가 '2024년 올해의 봉사왕'으로 양성모(56·사진 오른쪽)씨를 선정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5천956시간에 걸쳐 1천301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양씨를 올해의 봉사왕으로 결정했다.
양씨는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가정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말벗, 청소·목욕, 병원·외출 동행, 이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보금자리 정리 정돈을 통한 자립 지원, 취약 계층을 위한 급식 및 건강간 먹거리 제공, 김장김치 나눔, 도시락 배달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지속

해 왔다.
양씨는 개인 봉사 외에도 광양시 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바자회에도 손을 보탤었다.
재난재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도배·장판 교체와 밥차 운영 등을 도왔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서 서로 가장 먼저 나서서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농촌 일손 돕기, 아파트 주변 환경정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기부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양씨의 활동은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남지사 표창, 광양시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세바시V 전남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장애인복지관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가족과 함께 1만시간 봉사를 달성해 포스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도 안았다.
김기홍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그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지역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올해의 봉사왕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모씨는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봉사왕으로 선정돼 깜짝 놀랐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제가 해온 작은 봉사들이 이렇게 큰 의미로 인정받아 더욱 뿌듯하다. 이 상은 제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에 참여

해 준 많은 분들과 나는 공로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성모씨는 오는 29일 광양시 '자원봉사의 밤' 기념식에서 상패를 받는다.
/광양=양홍렬기자



진도경찰 ‘의무위반 예방 청렴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21일 “전날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청렴 캠페인’과 숙취운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고비나성 의무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진도경찰 모두가 청렴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의무위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도=박서연기자



보성경찰서, 협력단체 치안간담회·합동순찰

보성경찰서는 21일 “전날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벌교파출소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찰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 벌교지용방범대, 보성이성자율방범대, 벌교생활안정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치안정책을 공유하고 취약지 합동순찰 등 협력치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벌교역 등 벌교읍 일대에서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통해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도 전개했다.
고은경 경찰서장은 “협력단체 등 협업을 통한 주민의 불안 요인을 지속 발굴 및 해소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광주경찰 양행순할대, 주간 음주단속 시행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는 21일 광주 북구 청품센터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주간 음주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행순할대·사이카·교통경찰·기동대 등이 함께 진행했다.
윤시연 양행순할대 팀장은 “주·야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유혹·변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교통취약시간에도 상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결혼

- ▲김승수·최준자씨 아들 인찬군, 박태희(대상정밀 대표)·정성숙씨 딸 보람양=23일 (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투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 710-4000, 010-9190-1866.
- ▲이준·박인숙씨 장남 은식군, 이홍희·이선영씨 장녀 예은양=24일 (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도천동 147-29)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 228-0000, 010-3647-9902.

부음

- ▲고영규씨 별세, 고병일(광주은행)씨 부친상=발인 23일 (토) 오전 10시30분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101호 (062-521-4444).
- ▲정훈규씨 별세, 박숙현씨 남편상, 정희선·이선·울림씨 부친상, 임현정·이현우씨 장인상, 임하민씨 조부모상=발인 23일 (토)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2B호 (010-8615-5678).



광주매일신문 '복지사회 언론 역할' 주제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21일 오후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회장은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의 '노인과 여인' 그림을 예로 들며 “사물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역시 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자제가 필수

적”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사고 등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며, 성공 사례나 미담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굴해 보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제도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갖춘 보도가 필요하다”며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해당 연수를 통해 언론인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고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보도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박현진기자

광주전남혈액원-조선간호대 '생명나눔'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하 광주전남혈액원)은 21일 “전날 조선간호대학교와 학교 내 1층 회의실에서 ‘현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과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양 기관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내 헌혈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혈액원과 우리 지역 생명나눔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교육의 하나인



현혈교육과 생명나눔을 통해 올바른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한마음 대회' 성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9일 TBN광주교통방송과 함께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24 교통사고 줄이기·교통통신훈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통약자·개인형 이동장치(PM)·이동차·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은철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통신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사고 운전자상 등 시상식과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돕는 기부금 전달식, TBN어린이합창단 공연, 교통안전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교통안전의식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은철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고령자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자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모상모 전남경찰청장, 장흥경찰서 방문 간담회

장흥경찰서는 21일 “모상모 전남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장흥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를 방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으며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운기 운행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장흥군 노인회와 고령자 경운기 운전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 청장은 “장흥경찰서뿐 아니라 전남경찰청 차원에서도 각 시·군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이후 모 청장은 읍내지구대와 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의 유기적인 업무 대응과 복지를 위해 건의사항 등을 경청한 후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기자

재경담양군 월산면향우회,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재경담양군 월산면향우회는 “최근 서울 성동구 레노스블랑슈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4번째를 맞은 이번 정기총회에는 재경 향우와 고향에서 상경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이상오 재경담양군 월산면향우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병노 담양군수의 축하 영상 메시지, 향우회 결산 및 감사보고, 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향우들이 함께 고향의 정을 나누는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담양=정승군기자



월산면향우회는 고향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조운재 해양구조협 협서부지부 협회장 '장관 감사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조운재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이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2024년 모범 제복 근무자 등 포상식’에서 보훈 기여자 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으로 취임한 조 협회장은 이날 모범 제복 근무자 286명과 함께 모범 보훈 기여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그는 지난해 3월8일 진도군 구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선박 사고 당시 목포해경의 구조 작업을 지원해 3명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조운재 협회장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